

현민 여러분께

돗토리현 서부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의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돗토리현이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요나고 시내 일부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시행하기로 한 점 등을 바탕으로, 현민 여러분께 지금까지의 요청사항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 기간은, 2021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도도부현을 넘는 이동)

1. 돗토리현이 불요불급한 외출 자속을 요청한 돗토리현 서부지역과의 왕래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업무(통근을 포함)나 전근, 취업 활동, 장례, 병간호 등의 왕래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점 이용)

2. 지금까지 「현 외부 사람과의 식사」에 대해서, 돗토리현은 현 내와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만, 돗토리현이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돗토리현」도 예외적으로 현 외로 취급하겠으니, 현 외부 사람과의 식사 제한이 적용됩니다.

현으로서는 현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치는 내용이지만, 근접한 현이며, 왕래가 잦은 돗토리현에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20일

시마네현 지사 마루야마 다쓰야